

## 콜로키움 개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9월 1일, 22일, 10월 27일 3회에 걸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제27~29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은 Zoom 화상회의와 대면 강연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제27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류도향(HK 교수)의 사회로 우정아(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를 모시고 「장소특정적 미술과 공동체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진행하였다. 27차 콜로키움에서 우 교수는 “동시대 미술에서 주요 키워드가 된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과 쟁점,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연관해 논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 교수는 서구에서 이뤄지는 공공미술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장소와 커뮤니티의 관계 속에서 공공미술, 미술가의 역할, 기능,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8차 콜로키움은 윤재석(경북대 사학과) 교수를 모시고 「중국 고대 여성의 역할과 실상」이란 주제로 진행하였다. 윤 교수는 근래 중국에서 발굴된 간독(簡牘) 등의 문자 자료에 반영된 중국 고대 일반 여성의 존재 양태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원시 유가 이래 유교적 여성관으로 정형화된 중국 고대 여성의 실상이 무엇인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하였다.

윤 교수는 “전국시대 이래 진한대에 이르는 시기에

27차, 장소특정적 미술과 공동체의 정체성

28차, 중국 고대 여성의 역할과 실상

29차, 인류세 시대의 탈식민과 탈성장, 그리고 돌봄 커먼즈의 재구성

여성 역시 남성 못지않게 가족과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인적·물적 요소의 중요한 생산 기반으로 평가되었는 바, 이는 男耕女織의 성적 분업에 머물지 않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결과이자 이를 지배의 한 기반으로 인식한 국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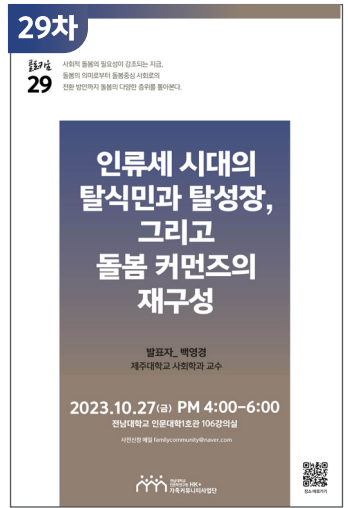
력의 여성노동에 대한 적극적 활용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29차 콜로키움은 백영경(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를 모시고 「인류세 시대의 탈식민과 탈성장, 그리고 돌봄 커먼즈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진행하였다. 백 교수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돌봄의 의미로부터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방안까지 돌봄의 다양한 층위를 훑아보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백 교수는 “인류세는 단순한 시대 개념을 넘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이자,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고 또한 현실

에 대한 논의를 조직하는 서술 도구의 역할과 행동을 이끌어 내는 강력한 도구로, 인류세 개념 자체가 현실에 대한 비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류세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미라 교수(인문학연구원장)는 “제27~29차 콜로키움은 전통시대 고대 중국에서 현대의 장소특정적 미술을 거쳐 인류세 시대의 탈식민과 탈성장, 돌봄 커먼즈에 이르기까지 동서양과 시대를 넘나드는 주제를 통해 문자, 여성, 공공미술, 인류세를 전유하는 통섭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8월 28~30일 2단계 3차년도 하계 워크숍 실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은 2023년 8월 28일(월)~30일(수), 통영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하계 워크숍에서는 원장 이하 HK 교원 및 HK 연구보조원, 협동과정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2단계(2021~2024) 연차별 주요 일정과 세부 성과 이행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월별 세부 일정 및 팀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기반조성팀, 학술기획팀, 국가전략팀, 성과확산팀, 지역인문학센터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기반조성팀은 인문커뮤니티학협동과정 운영과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고, 학술기획팀은 12월에 개최될 국제학술대회 세부 진행 상황 및 하반기 세미나와 스터디 계획을 공유하였다. 국가전략팀은 국가전략총서 2권에 대



한 기획 주제와 세부 사항을 공유하였고, 성과확산팀은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계획 및 광주드림 칼럼 관련 안내를 공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인문학센터는 <달빛 인문학> 하반기 강좌와 18회 인문 주간 관련 일정을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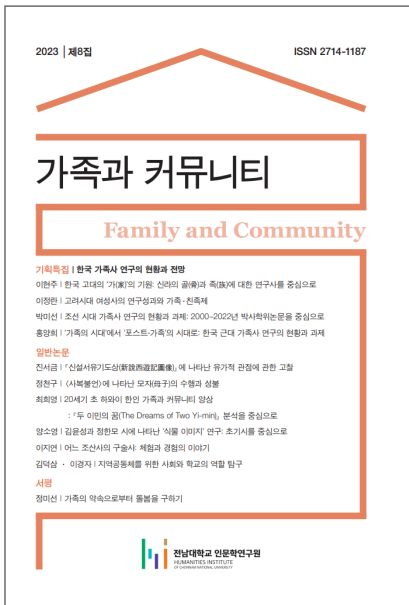
# 『가족과커뮤니티』 8호 발간

##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제 기획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이 연 2회 발행하는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 8호가 발간되었다. 이번호에서는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한국사 분야에 기획특집을 마련하여 이현주(이주대) 교수의 『한국 고대의 가(家)의 기원』, 이정란(충남대) 교수의 『고려시대 여성사의 연구성과와 가족·친족제』, 박미선(전남대) 교수의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홍양희(한양대) 교수의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등 총 4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와 함께 진서금,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나타난 유가적 관점에 대한 고찰, 정천구, 『사복불연에 나타난 모자의 수행과 성불』, 최희영, 『20세기 초 하와인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 양소영,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이지연, 『어느 조산사의 구술사』, 김덕삼·이경자,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등 문학, 철학, 구술사, 정책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학문, 융복합적 연구 성과를 다양하게 반영하였다.

인문학연구원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는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가족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과 학문의 연구 성과가 다수 투고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록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술지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으며 향후 등재지로 승격시켜 가족과 커뮤니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전문 학술지로 발전할 계획이다.

##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 제18회 인문주간 행사 개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은 제18회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함께 살아가는 인문



학. 함· 삶· 인·인’이란 주제로 10월 30일(월) ~ 11월 4일(토)에 걸쳐, <광주시민 ‘시’ 낭송회 - 시의 운율에 사랑을 신다>, <내 인생의 책, 나와 당신을 ‘이어주

## 연구원 학술 동성

### 논문게재

- ▶ **김경학**, 『‘제한된’ 영주귀국사업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건강과 돌봄』, 『재외한인연구』 62호, 재외한인학회, 2023.08.31.
- ▶ **민병로**, 『5·18민주유공자 보훈 현황과 개선 방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3.09.30.
- ▶ **박미선**,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2022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8호,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2023.07.31.
- ▶ **이원석**, 『심귀보의 칩 개념에 관한 조선 유학자의 평가와 정체규의 이해』, 『동양철학』 59호, 한국동양철학회, 2023.07.31.
- ▶ **조경순**, 『자전적 이야기의 구조와 서사적 정체성 - 광주 지역어 화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3호, 한국어문학연구소, 2023.08.31.
- ▶ **조경순**,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한국어 교육 방안 제언』, 『한국어 교육 연구』 19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3.08.31.
- ▶ **조경순**, 『광주 지역인의 연결어미 사용에 대한 사례 연구』, 『한말연구』 27집, 한말연구학회, 2023.08.31.
- ▶ **추주희**, 『집성촌 두 여성 노인의 노동 경험과 돌봄 활동으로 본 젠더 규범의 변화』, 『한국여성학』 39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23.09.30.
- ▶ **추주희**, 『5·18피해자의 삶의 위기와 사회적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3.09.30.
- ▶ **한우리**, 『19세기 미국 흑인 여성 문학 연구와 교차성』, 『근대영미소설』 30권 2호,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2023.08.31.
- ▶ **한의승**, 『공통의 경험에 대한 기록과 거리 -호구일록과 평창일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97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23.09.30.

는 한 구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를 주제로 인문주간 영화제를 진행하였다.

주요 행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시민 ‘시’ 낭송회 - 시의 운율에 사랑을 신다>는 배한봉 시인을 모시고 “시가 갖든 삶 - 생태의 노래”라는 강연과 시민 참여 시 낭송회가 전남대 인문대 1호관 강남주기념홀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인문주간 영화제는 광주 독립영화관gift에서 고례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이상문 감독의 <고속도로 가족>을 상영하고, 황운 감독의 <어느 집식가의 딜레마>, 오성호 감독의 <그 겨울, 나는>이라는 영화를 상영한 뒤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